10.27기념재단 설립근거 마련될까

강창일 의원 등,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 발의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은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정각회 소속 김영주 · 신경민 · 오영훈 · 이개호 · 이원욱 · 추미애(이상 더불어민주당) · 강길부 · 이진복(이상 바른정당) ·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추모 · 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운영 및 각종 추모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지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인가… 추모사업 수행
"종교 특혜 아닌 과거사 치유"
기재부 반대 입장, 협의 관건
재단 출연에 대한 논의도 필요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 제주4.3사건 ·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유사한 과거사 법률과 달리 기념재단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교계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념재단 설립 내용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기간이 짧았고,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해 심의서 제외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념재단 설립이 단순한 종교기념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차원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치유 · 화해 차원서 이뤄져야함을 기재부에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 관련 법령을 연구한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기념재단 설립을 불교계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법난 자체를 국가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법난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개정안 통과 외에도 재단법인 출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 · 3사건특별법에는 '제주4 · 3 관련 재단에의 출연'이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난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특별법 이전 민간차원 재단이 설립된 터라 법안 통과 후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조계종 측은 개정안 협의과정서 출연 주체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유사 법률에도 정부와 지자체 출연이 명시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금정사 명훈 스님(왼쪽), 박경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빈곤문제 단체 후원 이어간다

무차대회 인연… 1사찰 1단체 후원결연

빈곤문제 해소에 일조하고자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서 인연을 맺은 사찰과 빈곤문제 사회단체가 2년간 결연을 이어가게 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1사찰 1단체 후원결연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2014년 개최한 무차대회서 사찰과 빈곤문제 단체의 결연을 확대 · 연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2차(2016~2018) 결연은 22개 사찰 및 스님이 총 14개 단체를 후원한다. 1차(2014~2016)에 비해 2배가량 확대됐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참석단체를 대표해 "광화문 지하차도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외친 지 1608일째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이 다녀가셨고, 송파세모녀 사건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셨다"면서 "불교계 지원이 세상을 함께 바꾸는 힘이 된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단체들에겐 더 없이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총무원에 들어오면서 '붓다로 살자'는 문구를 봤다. 소에 올라타 소를 찾는 어리석은 중생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며 "사회를 바꾸는 일은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년간 사찰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신 스님들에게 액수를 떠나 감사드린다"고 후원사찰을 격려한 뒤 "차별 없이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종단도 평등사회 구현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연에는 김포 금정사를 비롯한 18개 사찰과 개별 스님 4명이 동참해 홈리스행동 · 빈곤사회연대 등 14개 단체를 후원한다. 윤호섭 기자

〈환경과 불교〉 발간

환경위, 환경교재 발간 8년 만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환경교육용 교재 〈환경과 불교〉를 발간했다.〈사진〉 이는 불교계 환경활동가 및 스님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20여년 활동성과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간됐다.

환경위 측은 "지난 2008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환경교재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작한지 8년이 지나 내용 보완 및 대상에 맞는 교육용 교재가 필요하단 요청이 제기됐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교재는 △제1장 현대 환경문제와 불교(홍석환 부산대 교수) △불교의 생태적 사유와 전통(서재영 불광연구원 박사) △전통사찰의 공익적 특성과 가치(이영경 동국대 교수) △사찰림의 특성과 관리(최송현 부산대 교수) △사찰환경문제와 대책(이병인 부산대 교수) △환경재해와 에너지 전환(김익중 동국대 교수)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아름 기자

2만 불자, 광화문서 〈금강경〉 독송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4월 6일 '금강경 독송 정진대회' 개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일환
전국 300개 사찰 동참 예정
이기흥 "불자 자부심 고취"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서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정진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19일 전법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의 신년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중앙신도회의 대표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국태민안 기원 전국불자 금강경 독송 정진대회'로 확대 개최된다.

이기흥 신도회장은 "지난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일환으로 순례했던 300개 사찰을 중심으로 독송 정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독송 정진대회는 불자들이 〈금강경〉 독송을 통해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이미 조계종 전 교구본사를 비롯해 주요사찰 동참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와 전국 25개 교구 본말사 스님, 중앙신도회 임원진과 포교사, 불자 정치인과 주요 정관계 인사 등이 운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정진대회를 통해 최근의 탈종교화 및 불자감소 현실에서 신행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불자들의 자부심과 신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의 사회 참여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소 500개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 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2017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인 1불자 만들기', '신도등록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평창 월정사, 속초 신흥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체육인불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11월 1일 평창올림픽 성공기원법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2,900억 규모 건물 헐거나 기부채납 가능성도

강남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前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추후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077㎡을 사용토록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법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1심부터 다시 판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사적 이익보단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절실하단 것을 고려해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리고, 정치와 종교 결탁의 유혹을 예방한 판결"이라 평가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주민소송대책위)'도 즉각 환영을 표했다. 주민소송대책위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것은 정의와 청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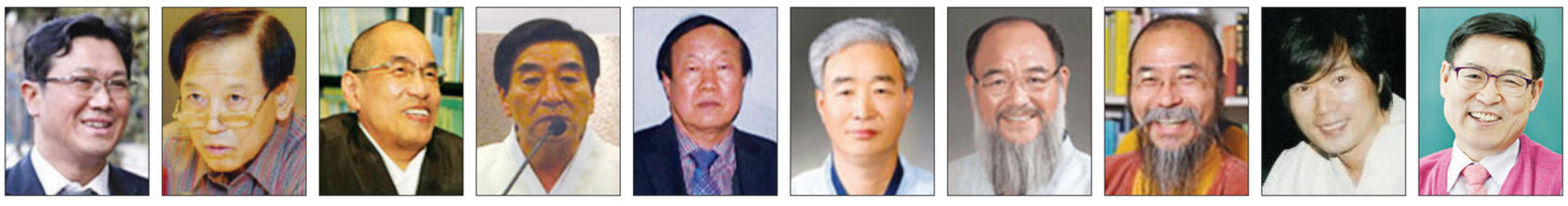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